

• 에베소서 6:1-3

**제5계명은 ‘부모 됨’에 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부모로만 살아온 사람이 없고 언제나까지 자식에만 머물러 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자식들도 부모가 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풍족함이나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신 6:6-9).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며, 부모는 가장 훌륭한 종교 교육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첫걸음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기 시작합니다.

**‘난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부모가 하기 쉬운 착각입니다. 내 방식대로의 최선은 아닙니까?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오히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막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엡 6:4, 쉬운성경). 성경은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단호히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속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받습니다(엡 6:3).** 오래, 길게 인생을 산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받는 일이 자자손손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본을 보인 부모와 가르침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제5계명은 부모를 넘어 가정 전체를 아우르는 복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의 대를 잇는 믿음의 가문입니까?

- ① 부모와 자녀 모두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 ②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